



4

언어 영역

출수형

11. <보기>의 분류 절차에 따라 용례를 A와 B로 나눈 결과로 적절할 것은?

<보 기>

<분류 절차>

- 각 용례에서 동사 '들다'의 의미를 확인함.
- 확인한 의미의 상호 유사성을 기준으로 분류함.

<용례>

ㄱ. 감기가 <u>들다</u> .	ㄴ. 가방을 <u>들다</u> .
ㄷ. 단풍이 <u>들다</u> .	ㄹ. 고개를 <u>들다</u> .
ㅁ. 반기를 <u>들다</u> .	ㅂ. 보험을 <u>들다</u> .

- | A | B |
|--------------|------------|
| ① ㄱ, ㄴ | ㄴ, ㄹ, ㅁ, ㅂ |
| ② ㄱ, ㄷ, ㅁ | ㄴ, ㄹ, ㅂ |
| ③ ㄱ, ㄷ, ㅂ | ㄴ, ㄹ, ㅁ |
| ④ ㄱ, ㄹ, ㅁ | ㄴ, ㄷ, ㅂ |
| ⑤ ㄱ, ㄷ, ㄹ, ㅂ | ㄴ, ㅁ |

12. <보기>를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제5항

㉡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예) 어깨, 잔뜩, 살짝, 듬뿍, 몽땅

㉢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예) 국수, 범석

제27항

㉣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칼날, 꽃잎, 만사위, 흠이불

- ① ㉡를 보니 모음 뒤나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가 소리 나는 대로 표기되어 있군.
- ② '납작'이 아니라 '납작'으로 적는 것은 ㉢의 '범석'을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③ '찹쌀하다'가 아니라 '찹쌀하다'로 적는 것은 ㉢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군.
- ④ '물뽕'이 아니라 '물뽕'으로 적는 것은 ㉢의 '칼날'을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⑤ '깍뚜기'가 아니라 '깍뚜기로 적는 것은 ㉢의 '만사위'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자화상(自畫像) 윤동주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피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미워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없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가겨워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미워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그겨워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피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각운



(나) 선제리 아낙네들 고은

먹밤중 한밤중 새터 중똥 개들이 시골짜하게 짓어댄다
이 개 짓으니 저 개도 짓어 대가 겁작
들 건너 갈매 개까지 덩달아 짓어댄다 반박

이런 개 짓는 소리 사이로
언뜻언뜻 까 여 다 여 따위 말끝이 들린다 음성상징어 [A]

밤 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반박

콩밭 김칫거리
아쉬울 때 마늘 한 접 이고 가서
군산 목은장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아낙네들 반박

팔다 못해 파장떨이로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반박

① 시오릿길 한밤중이니
십릿길 더 가야지
빈 광주리야 가볍지만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성의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 기러기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① 의좋은 한세상이더냐 명당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새 개 짓는 소리 뜰헤지고
밤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 어둠이 눈을 멀뜨거린다

(다) 그 나무

김명인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대간**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춰서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대화체** [B]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이름드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을 어딘가 **정서적점**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 꽃볼 성화, 비유, 시각**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 난만한 봄길** 어디,
늦감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뿌듯한** 잎새 매달까요? **박재. 의문**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평양 뜬새 **◎ 가난한 소지(燒紙)***,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

* 소지: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 X
- ② 대상의 미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전망이 드러난다. X
- ③ 대상과 일체가 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X
- ④ **대상을 딱하게 여기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가
- ⑤ 대상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식이 드러난다. X

14.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화상(自畫像)」은 1941년 『문우(文友)』에는 ‘우물 속의 자상화(自像畫)’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이 제목에서는 ‘우물’과 ‘그림’이 부각되어 있다. 상징적 관점에서 볼 때, **우물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사물이고, 하늘을 향해 있는 동굴이며, 그 동굴의 원형인 모태(母胎)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다.** 이 점에서 보면, 이 시에서 우물 속의 자상화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다층적으로 담아 내고 있는 그림이다.**

- ① 제1연에서 ‘외판’, ‘홀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등으로 보아, ‘우물’은 화자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내밀한 공간이겠군. 0
- ② 제2연에서 ‘우물 속’에 들어 있는 자연은 하늘을 향해 있는 우물 속의 그림이므로, 화자가 지향해 온 바를 담고 있겠군. 0
- ③ 제3연~제5연에서 ‘한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반응들로 보아, 화자는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겠군. 0
- ④ 제6연에서 자연과 ‘사나이’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우물 속의 자상화를 들여다보는 화자가 존재 **탐구를 끝냈음을** 의미하겠군. X
- ⑤ 제6연에서 ‘추억처럼’에는 고향과 같은 모태적 공간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려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겠군. 0

15.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X~~ [B]는 [A]와 달리 대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한다.
- ② **◎ A**는 [B]와 달리 유사한 구절을 병치하여 운율감을 조성한다.
- ③ ~~X~~ [A]는 [A]와 달리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입체감을 부여한다.
- ④ [B]는 ~~X~~ [A]와 달리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부각한다.
- ⑤ ~~X~~ [A]는 [A]와 달리 의성어를 통해 구체적인 생동감을 부여한다.

1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군산 목은장’과 ‘선제리’ 사이의 거리로, ‘한밤중’, ‘십릿길’과 더불어 ‘**아낙네들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0
- ② ㉡: ‘끼리끼리’와 상관되는 것으로, **공동체적 삶**에 공감하는 화자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다. 0
- ③ ㉢: ‘늦된 나무’가 피워 낼 ‘꽃’을 성스러운 불에 비유한 것으로, ‘**늦된 나무**’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내포되어 있다. 0
- ④ **◎ ㉣**: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봄길’로, **일탈적 삶**에 대한 화자의 갈망이 간절한 것이었음을 나타낸다. X
- ⑤ ㉣: 가을의 나뭇잎을 ‘깨달음’과 관련하여 표현한 것으로, ‘불타는 소신평양’과 대비되어 화자의 **겸손한 태도**를 드러낸다. 0

? 오타

11수능 13~16번

시 내용설명은 파란색

표현법은 핑크색으로 하겠습니다 ㅎㅎ

(가)자화상 - 윤동주

일단 시는 제목을 확인해야겠죠?

자화상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네요 ㅎㅎ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외딴’ 우물을 들여다보고 있네요.

제목이 자화상인걸로 보아서 자신을 비춰보려고 보는 거겠죠.

‘외딴’ 이런 표현은 체크를 해놔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정서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죠.

들여다봅니다 - 대화체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가 나오면 그림 그리는 게 편합니다 ㅎㅎ

우물 속에 이것저것 있네요 ㅎㅎ

달이 밝고 - 시각

파아란 - 색채, 시적허용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자화상이니까 그 사나이는 나겠죠 ㅎㅎ

자화상 아니어도 우물에 비친거니까 나죠 ㅎㅎ

자기 자신이 밉다네요 ㅎㅎ

미워져 - 정서 직접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없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응? 이젠 가없다네요..

그 놈은 아직 거기 있습니다 ㅎㅎ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헐.. 또 밍대요 변덕쩌네요 ㅋㅋ

이젠 그렇습니다

미워져, 그리워 - 정서 직접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2번째연이랑 비슷하네요 ㅎㅎ

달라진거는 추억처럼이 추가됐네요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

추억이란 건 지나간 기억을 의미하니까

추억처럼 있는 사나이는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나의 모습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ㅎㅎ

2연과 비슷 - 반복, 변용

이제 (가)시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순서대로 풀어볼게요 ㅎㅎ

아! 문제풀기 전에 설명할 게 있습니다.

판단부위라고 하는건데요 ㅎㅎ

시 문제들에 있는 선지는 모두 다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보통 선지가 A하여 B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학생들은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판단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예를 들면 <반복을 통하여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라는 선지가 나왔다고 하면요

긴장감을 고조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그거 고민하느라 시간 쓰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에요.

그런 건 판단부위가 아닙니다.

판단부위라함은 정오 OX를 판단해서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판단부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선지를 예로 들어볼게요.

문제는 적절한 것을 고르라였고

긴장감 고조시키지 않아서 틀렸다면 학생들이 어떻게 할까요?

난 긴장됐다 아니다 안 됐다 서로 치고박고 난리가 나겠죠.

당연히 정답시비가 붙을 거구요.

출제자 입장에서는 정답시비 붙는 게 가장 두려운일 아니겠어요?

복수정답 인정하면 다 사표쓰니까요 ㅎㅎ

그래서!! 애매한 부분은 답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통점 문제에서도 이 사실이 적용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가) 읽고 애매한 선지들이 있어도
거기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왜냐면 (나) 혹은 (다)에서 확실하게 알려줄테니까요.

여기에 또 하나 설명하자면
선지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는 것입니다 ㅎㅎ
확실한 것으로 승부를 보려는 언어의 특성상
자잘한 것 보다는 큰 것 위주로 먼저 판단하고
나중에 남아있는 것끼리는 자잘한 것까지 따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죠 ㅎㅎ

㉔13번.

선지1번. 대상의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여기서 판단해야할 것은 3개 입니다.
현재인지, 그게 대상의 상황인지, 화자가 비판하는지
앞에 부터 하나씩 찾으려면 참 시간 많이 걸리겠죠?
여기서 뭐가 핵심인가요? 당연히 비판적 태도죠
(가)시 무슨 내용이었나요?
자기 혼자 거울보면서 밋다, 가엾다, 밋다, 그립다 하다가 끝나는 시였죠?
비판 없네용 ㅋ

선지2번. 이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판단부위가 2개네요
낙관적 전망이 있는지, 그게 대상의 미래에 관한건지
하지만 낙관만 판단합니다
낙관없습 ㅋ

선지3번. 이 것부터는 잡설명 배제하고 판단부위만 판단할게요 ㅎㅎ
일체 되려는 마음? 없다 ㅋ

선지4번. 대상을 딱하게 여기는 마음? 4연에 가없어진다고 있었네! 오키
여기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언어는 내용의 일치점을 찾는 것이지 표현의 일치점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딱하게 여긴다 = 가없다
같은 말이죠?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이 같다면 맞는거고
표현이 비슷해도 내용이 다르면 틀린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에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텐데요
과외학생 중에 보면
이 얘기를 제가 수도 없이 하고
학생도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는데도
안 고쳐져지는 학생이 많습니다
왜냐면 평소에 이 명제를 머리 속에 담고 있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이겠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ㅎㅎ
언어는 표현의 일치점이 아니라 내용의 일치점!!

선지5번. 대결의식? 없다
방금 위에서 강조한 명제의 연장선에서 설명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ㅋ(잡설 안한다고 해
놓고 엄청 많네요..ㅋㅋ)

선지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면
 그 글자 그대로 생각하면서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나면
 지금 같이 대결의식 이라고 나오면
 많은 학생들은 머리 속에 '대결의식' 이 글자밖에 없습니다
 이 글자를 들고 (가)로 돌아가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합니다.
 내가 사나이를 밟다고 했으니까 대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출을 보면 생소한 개념어들이 많이 나올텐데요
 그 이유는 개념이라는 건 그때 그때마다 말 갖다붙이면 새로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럼 출제자는 그 개념어를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뭔가 물어보고 싶은 개념을 머리에 생각하고
 이걸 묻기 위해서 만들었겠죠.
 출제자도 '대결의식'이라는 확실하게 정의된 특정 개념을 묻는 게 아니라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적절한 단어를 골라 썼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개념어가 나오면 단어 자체를 붙들고 고민하지 말고
 그게 의미하는 게 뭘까, 출제자가 뭘 물어보려고 했을까 를 고민해야겠죠.
 대결 의식이라면 대립되는 거 싸우는 거 이기려는 거 정도가 되겠네요
 뭐가 되도 좋아요
 그 글자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언어로 한번 더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쓸데없는 고민은 안 해도 되겠죠 ㅎㅎ

아무튼 이렇게 해서 4번빼고 다 지워져으니 13번 답 4번 ㅋ

㉠14번. 보기를 참고하라네요.

근데 보기는 전체가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출제자가 뭘 주려고 하는지를 찾아야 합니다당ㅋ
 보기에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밑줄 쳐놨습니다 ㅎㅎ
 자화상이 어디에 게재 됐는지 알게 뭐예요 ㅋㅋ

선지1번. 우물 = 투영 ㅇㅋ. 보기에 있죠?

선지2번. 우물 = 지향해 온 바 . 보기에 하늘을 향해 있는 동굴이니까 지향해 온 바와 연결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늘이라고 지향해온 바라고 하기엔 좀 찝찝하죠?
 한번 발문을 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잖아요?
 2번은 찝찝하긴 하지만 틀렸다고 하기엔 더 찝찝하죠 ㅎㅎ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문제에 이런 선지들이 많습시다 ㅎㅎ
 대충 맞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수 포진해있고
 완전 ㅂ인거 하나있고 ㅎㅎ

선지3번. 자신을 성찰한다. ㅇㅋ 보기에 있잖아요 ㅎㅎ

선지4번. 자연과 사나이가 함께 나타남 = 존재 탐구 끝

딱 봐도 병신선지죠? ㅎㅎ

틀렸습니다. 시를 봐도 보기를 봐도, 그리고 아무리 추론해봐도 절대 나올 수 없는 결론이죠
 ㅎㅎ

선지5번. 추억처럼 = 고향 같은 모태. ㅇㅋ. 이것도 보기에 있습니다 ㅎㅎ

14번 답은 4번.

(가)에 관한 문제는 끝났으니 (나)를 봐야하는데요
 지금 (가)에 해당하는 것만 풀었는데 문제가 2개 밖에 안남았죠?
 지문이 두개 남았는데 문제도 두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문제가 뭘 묻고 있는지 보고 가는게 사람의 도리겠죠 ㅎㅎ
 그럼 (가) 보기 전에는 왜 문제 안 봤냐?!!!면
 어차피 봐도 까먹잖아요 ㄱ
 5개 어케 기억함ㄱ

㊟15번 보니까 A,B의 표현 묻고 있네요
 ㊟16번은 내용.

그러니까 (나), (다) 읽을 때는 표현은 A,B만 체크하면 되겠네요 ㄱ
 그치만 일단 분석을 해야하기에... 저는 다 하겠습니다 ㄱㄱ

(나)선제리 아낙네들 - 고은

제목을 보니 선제리에 있는 아낙네들이 사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ㅎㅎ

**먹밤중 한밤중 새터 중똥 개들이 시끌썩하게 짖어 댕다.
 이 개 짖으니 저 개도 짖어
 들 건너 갈뉘 개까지 덩달아 짖어 댕다.**

밤에 개가 짖네요 멍멍

먹밤중 한밤중 - 반복
 이 개 짖으니 저 개도 짖어 - 대구
 짖어 짖어 짖어 - 반복 ㄱㄱ, 청각

**이런 개 짖는 소리 사이로
 언뜻언뜻 까 여 다 여 따위 말끝이 들린다.**

말소리도 들리네요

언뜻언뜻 - 음성상징어
 까 여 다 여 - 반복
 개 짖는 소리, 들린다 - 청각(청각은 이제 그만 표시할게요 두 번 이상 나온 건 더 표시할 필요없습니다)

**밤 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종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밤 기러기가 떨어뜨리는 소리랑 남이 아니래요
 시에서는 이런 표현이 꽤 있는데요
 밤 기러기가 준 소리랑 남이 아니니까
 밤 기러기랑 남이 아니겠죠
 밤 기러기가 떨어뜨린 소리는 어떤 소리? 의종은 소리 ㅎㅎ
 근데 남이 아니라 했으니까 아낙네들이 의종은가 보네요 ㄱㄱ

추운 - 촉각(청각도 많이 나오고 이제 다른 감각인 촉각도 나왔으니 감각적으로 시상을 전개한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겠죠)
 남이 아니다x2 - 반복(이것도 이제 그만 ㄱㄱㄱ)

콩밭 김치거리
아쉬울 때 마늘 한 접 이고 가서
군산 묵은 장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아낙네들
팔다 못해 파장떨이로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시오릿길 한밤중이니
십릿길 더 가야지.

먹을 것 팔다가 다 못 팔고 오는 아낙네들인데
한밤중에 걸어갑니다
이 험한 세상에 ㅠㅠ

빈 광주리야 가볍지만
빈 배 요기도 못 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밥도 못 먹고 일했나 봅니다 ㅠㅠ

가벼울까 - 설의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의좋은 한세상이더냐.

위에 나온 걸 머라고 표현했죠? 고생
위에 주저리 주저리 나온 건 다 고생입니다.
근데 이 고생 혼자 하는게 아니라서
의좋은 거래요
근데 아낙네들한테 못난이라고 하고 있네요
잘난 브루주아 이신가 ㅋㅋ

한세상이더냐 - 설의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새 개 짖는 소리 뜸해지고
밤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 어둠이 눈을 멀뚱거린다.

이건 머 배경 묘사구요 ㅎㅎ

어둠이 눈을 멀뚱 - 의인, 형상화

◎15번.

A에 해당하는 거 볼게요

선지1번. 대조 - 없었죠. 못난 아낙네들이랑 남이 아닌 의좋은 밤기러기 뿐 ㅋ
주제의식 강조 - 판단 부위 아닙니다

선지2번. 유사한 구절 반복 - 계속 나왔죠 반복은 아주 지겹게 ㅋ
운율감 - 반복하면 무조건 생김 ㅋ

선지3번. A 와 달리 공감각 - A 공감각 없으니까 ㅇㅋ

선지4번. A와 달리 현재 시제 - A는 현재 시제임 ㅋ

선지5번. A와 달리 의성어 - 언뜻언뜻 있었음 ㅋ

A만 봤는데 답이 나왔네용 ㅋㅋ

15번 답은 2번

◎16번. (나)에 해당하는 선지 1,2번 볼게요 ㅎㅎ

선지1번. 그.시오릿길은 군산 목은장과 선제리 사이의 거리로/ 아낙네들이 처한 상황 /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번째 부분은 절대 틀리지 않는 선지네요 ㅎㅎ

이건 눈 뜨면 보이는 장소인데 이걸로 틀리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틀리게 하는건 소설에 가끔 나오죠 ㅎㅎ

아무튼 직접 확인해봐도 맞구요

아낙네들이 처한 상황을 나타낸다 = 아낙네들 여기랑 관련 있음?

같은 말이에요 ㅎㅎ

○○ 관련있음

구체적인지는 어케 암? 장소 나오면 당연히 구체적

그치만 실전에서는 아낙네들의 처한 상황 이것만 판단하고 넘어갑시다 ㅎㅎ

짜잘이는 나중에 봐도 늦지 않다가요

선지2번. 느.의좋은 한세상 - 끼리끼리와 상관 있죠

ㄴ 위에 보세요 끼리끼리 여서 의중다 라고 했으니까요

끼리끼리 = 공동체적 삶

완전히 같은 말이죠?

표현의 일치가 아니라 내용의 일치 ㅇㅋ

그럼 이제 (다)를 보겠습다

(다) 그 나무 - 김명인

제목이 그 나무네요
네.. 나무 얘기 하겠죠? ㅋㅋ
근데 그 나무니까 좀 스페셜한 나무일 듯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벗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혼자 꽃 못 피는 찐따 나무 하나 발견!!

벗꽃 - 시각, 계절감
발견했지요 - 대화체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다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부끄러워서 숨어있네요 ㅋㅋ
이런 귀요미

계속 -요 로 끝나네요 - 각운(선지표현엔 안 나옵니다. 그치만 각운이라고 써놓으면 반복, 운율감, 통일감, 안정성 한번에 알 수 있음 ㅋ)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을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봄은 애한테만 느리네요..
수험생들 중에도 이런 사람 있겠죠..
남들은 다 봄이 와서 점수가 올랐는데
나만 점수 꽃이 안 피고...ㅠㅠ

더디고 더더서 - 반복(완전 똑같진 않지만 이런 것도 반복이라고 써놓고 선지에서 유사한 구절이라고 하면 ㅇㅋ 하면 됨)
안쓰러웠지요 - 정서 직접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오오미!! 드디어 찐따도 꽃을 피웁니다!!
만개(萬開)한 거 보려고 난 거기서 스탱.
수험생여러분 지금 점수 안 오르는다고
난 찐따야 ㅠㅠ 하면서 절망하지 마세요
애도 늦었지만 꽃 폼났잖아요!! 화팅 ㅋㅋ

꽃불 성화 - 시각, 비유(수능에선 비유와 상징을 구분해서 틀리게 하지 않습니다. 비유 써놓고 상징 나오면 오키 하면 됩니당)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燒紙)*,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

나도 나무 처럼 꽃불 성화를 피고 싶단 말이다!!
+ 저 나무 꽃 피었으니까 다음 퀘스트인 푸르딩딩 가능함? 이런 내용

푸릇한,청록 - 색채(근데 동일한 색채)
매달까요?있을까요? - 의문의 형식(의문의 형식은 말그대로 물어보는 거)

*소지: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16번.

선지3번. 드.꽃불 성화가 늦된 나무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내포되어있나?

늦된 나무가 꽃 피길 기다리니까 맞지 ㅇㅋ

별 의미 없는 선지 ㅋㅋ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는 거에는 이런 의미없는 선지가 상당히 많아요

선지4번. 르.난만한 봄길 = 일탈적 삶에 대한 갈망?

잉??? 너무 병신선지다 ㅠㅠ

(다)시는 늦은 깨달음을 얻는 내용인데

일탈이 어디 있으류ㅠ

그대로 읽기를 통해 난만한 봄길을 보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 헤맨 길 정도가 되겠네요 ㅋ

선지5번. 므.가난한 소지가 깨달음과 관련되어 있고 불타는 소신공양과 대비되어 화자의 겸손한 태도를 들어낸다.

분명히 4,5번 고민하다가 5번해서 틀린 사람 있을건데

항상 확실한 걸로 답을 고르라니까요!!

4번은 분명 틀렸는데

5번은 잘 모르겠으니 5번으로 가자!! 이런 명충이 짓을 버려야 점수가 오릅니다 ㅋ

불타는 것은 확 일어나는거 가난한 건 수수하게 하는 것 이니까

겸손하다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전체 시 흐름으로 보아도 딱히 이상하진 않죠

적절하지 않은 것에서는 아 대충 비슷하게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은 맞는 선지로 껴놓습니다

이런 거에 속지마세요 ㅎㅎ

4

언어 영역

11.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보 기>

요리에서 재료를 가공하는 방법을 표현하는 동사들 중에 '다지다: 찳다: 썰다: 찢다' 같은 것들이 있다. 아래에서 이들의 용법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보자.

도구를 사용합니까? → 아니요 → ㉠

예 ↓

칼을 사용합니까? → 아니요 → 절굿공이를 사용합니까?

예 ↓

재료를 아주 잘게 만듭니까? → 아니요 → ㉡

예 ↓

→ ㉢

- | | | | |
|-------|------|-------|-------|
| ㉠ | ㉡ | ㉢ | ㉣ |
| ① 찳다 | ① 썰다 | ① 찢다 | ① 다지다 |
| ② 찳다 | ② 썰다 | ② 다지다 | ② 찢다 |
| ③ 찢다 | ③ 찳다 | ③ 찢다 | ③ 다지다 |
| ④ 찢다 | ④ 찳다 | ④ 다지다 | ④ 썰다 |
| ⑤ 다지다 | ⑤ 찢다 | ⑤ 찳다 | ⑤ 썰다 |

12. <보기>는 접반침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연결될 때, 접반침의 자음 중 발음되는 것을 [] 속에 적은 '표준 발음'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맑-도록 [ㄱ]	㉡ 늙-지 [ㄱ]	㉢ 읽-지 [ㄱ]
㉣ 맑-게 [ㄹ]	㉤ 늙-고 [ㄹ]	㉥ 읽-거나 [ㄹ]
㉦ 닭-같이 [ㄱ]	㉧ 흙-과 [ㄱ]	㉨ 칠-과 [ㄱ]
㉩ 얇-도록 [ㄹ]	㉪ 넓-지 [ㄹ]	㉫ 밭-도록 [ㅂ]
㉬ 얇-게 [ㄹ]	㉭ 넓-고 [ㄹ]	㉮ 밭-게 [ㅂ]

- ① ㉠, ㉣를 보니, 용언 어간의 'ㄹ'의 발음은 'ㄹ'이나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가 서로 다르군.
- ② ㉡, ㉤를 보니, 'ㄹ'의 발음은 'ㄹ'이나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가 서로 같군.
- ③ ㉣, ㉥를 보니, 'ㄹ'의 발음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가 서로 다르군.
- ④ ㉦, ㉨를 보니, 용언 어간의 'ㄷ'의 발음은 '얇-', '넓-'의 경우와 '밭-'의 경우가 서로 다르군.
- ⑤ ㉩, ㉮를 보니, 동일 용언 어간의 'ㅂ'의 발음은 'ㄷ'이나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가 서로 다르군.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길 김소월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집에
까마귀 까악까악 울며 새웠소. 대화체
정감. 음성상징어

오늘은
또 몇 십 리
어디로 갈까. 설의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대구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말 마소 내 집도
정주 광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도.

반복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십자 복판에 내가 섰소.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나) 적막강산 백석

오이밭에 벌배채* 통이 지는 때는
산에 오면 산 소리
벌로 오면 벌 소리 대구. 정감. 반복

산에 오면
큰솔밭에 삐꾸기 소리
잔솔밭에 덜거기* 소리

벌로 오면
논두렁에 물닭의 소리
갈밭에 갈새 소리

*헛소리

산으로 오면 산이 들쭉 산 소리 속에 나 홀로
㉞ 벌로 오면 벌이 들쭉 벌 소리 속에 나 홀로

정주 동림 구십여 리 긴긴 하룻길에
산에 오면 산 소리 벌에 오면 벌 소리
적막강산에 나는 있노라

* 벌배채: 들 배추, 야생 배추의 방언.
* 덜거기: 늙은 장끼.

(다) 단가 육장 이신의

장부의 하울 자업 아는가 모르는가 설의
효제충신(孝佛忠信)밖에 하울 일이 또 있는가
㉞ 어즈버 인도(人道)에 하울 일이 다만 인가 하노라 <1장>
영탄

남산에 났던 술이 어디로 갔단 말고
난(亂) 후 부근(斧斤)이 그다지도 날랜시고
㉞ 두어라 우로(雨露)곤 깊으면 다시 볼까 하노라 <2장>

창밖에 세우(細雨) 오고 뜰 가에 제비 나니
적객의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어
㉞ 저 제비 비비(飛飛)를 보고 한숨 겨워하나니 <3장>
정서

적객에게 벗이 없어 공량(空樑)*의 제비로다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 하는지고
㉞ 어즈버 내 풀어낸 시름은 널로만 하노라 정서 <4장>

인간(人間)에 유정한 벗은 명월밖에 또 있는가 설의
천 리를 멀다 아녀 간 데마다 따라오니 후각
㉞ 어즈버 반가운 옛 벗이 다만 넌가 하노라 <5장>

계절감. 시가
설월(雪月)에 매화를 보러 잔을 잡고 창을 여니
섞인 꽃 여윈 속에 잦은 것이 향기로다
어즈버 호점(蝴蝶)이 이 향기 알면 애 풀일까 하노라 <6장>

* 부근: 큰 도끼와 작은 도끼.
* 적객: 귀양살이하는 사람.
* 공량: 들보.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㉞한 것은?
- ㉞ 자연물과의 관계를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제시한다.
 - ㉞ 시각의 대립을 통해 부정적 현실 인식을 드러낸다. X
 - ㉞ 역동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낸다. X
 - ㉞ 회상을 통해 화자 자신의 삶을 반성한다. X
 - ㉞ 명암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한다. X

14. (가)에서 외로움의 정서를 심화하는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㉞은 것은?

- ㉞ '오늘'도 정처 없이 '길'을 가야 함. 0
- ㉞ '오라는 곳'이 없음. 0
- ㉞ '내 집'이 있어도 가지 못함. 0
- ㉞ '기러기'와 떨어져 있음. X
- ㉞ 갈 곳 없이 '열십자 북판'에 서 있음. 0

15.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㉞은 것은?

- ㉞ 1연의 1행은 '벌배채'가 여물어 가는 때라는 의미로 '산'과 '벌'의 계절적 배경을 드러낸다. 0
- ㉞ 1연의 2행~3행은 '산'과 '벌'에 대한 경험을 칭각적으로 제시한다. 0
- ㉞ 2연과 3연은 '산'과 '벌'에서의 칭각적 체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0
- ㉞ 4연은 '산'이 '벌'과 상반된 공간적 의미를 지님을 드러낸다. X
- ㉞ 5연은 '산'과 '벌'에 대한 체험의 의미를 집약하여 마무리한다. 0

16.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㉞은 것은?

- ㉞ (가)의 제목은 제재를, (나)의 제목은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 ㉞ (가), (나) 모두 시어나 시구의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 ㉞ (가)의 '정주 광산', (나)의 '정주 동림'은 화자가 경험한 구체적 공간이다.
- ㉞ (가)의 '갈린 길'은 공간적 성격을, (나)의 '하룻길'은 시공간적 성격을 띤다.
- ㉞ (가)는 의문과 확인을 통해, (나)는 서술어의 제한적 사용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X

17. (다)의 ㉞~㉞ 중 <보기>의 내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보기>
「단가 육장」에서 작가는 귀양살이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리라는 우려 속에서도 정계에 복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㉞ ㉞ ㉞ ㉞ ㉞

18. (다)에서 화자와 대상의 관계가 (나)의 ㉞와 가장 가까운 것은?

- ㉞ 1장 ㉞ 2장 ㉞ 3장 ㉞ 5장 ㉞ 6장

11. 9월평가원 13~18번

(가) 길 - 김소월

제목이 길이네요 ㅎㅎ

그럼 길에 대해 얘기겠죠?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뭐하러 쓰냐하면

학생 대부분은 제목을 봐도

아 길. 하고 끝이예요

근데 제목은 이렇게 한번 더 생각을 해서

시 내용을 파악할 때 머리속에 넣어놓고 있어야합니다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까마귀 까악까악 울며 새였소.

나그네 묵은 곳에 까마귀 우네요

까악까악 울며 - 청각, 음성상징어

새였소 - 대화체

오늘은

또 몇 십 리

어디로 갈까.

나그네니까 오늘도 돌아다녀야겠죠?

갈까 - 의문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어디 갈지 고민하는데 오라는 곳이 없어서 못 간대요.. ㅠㅠ

대구,반복

말 마소 내 집도

정주 곽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내 집도 교통 수단이 있네요 ㅋㅋ

왔다갔다 할 수 있다는, 사람 산다는 머 그런 의미겠죠

근데 말 마라고 했으니 교통수단이 있어도 못 간다는 거겠죠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이젠 갑자기 기러기를 보내요

기러기를 부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ㅎㅎ

의인화된 청자설정-> 대화체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 십자 복판에 내가 썼소.

사거리에 내가 서있네요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겠죠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 위에 거랑 똑같네요 반복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은 있어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길은 있어도 내 길은 없대네요..

갈 곳 없는 불쌍한 나그네 얘기였습니다

갈래갈래 갈린 길 - ㄱ,르 반복 쯤네요

이제 (가)와 관련된 문제를 볼게요 ㅎㅎ

☺13번.

선지1번. 현재상황 - 현재형 어미를 쓰고 있네요 ok

선지2번. 시각적 대립 - 시각적 이미지 표시한거 없죠? X

선지3번. 역동적이미지 - 전혀 없네요 ㅎㅎ

선지4번. 회상 - 없구요

선지5번. 명암 대비 - 이것도 없네요 ㅋ

최근들어 문제를 이렇게 성의 없이 만드는 경향이 있네요 ㅋㅋ

13번 답 1번

☺14번. 외로움 심화하는 게 아닌걸 찾으라네요

이 문제는 왜 냈는지 모르겠네요

문제 개수 채우려고 낸건가..

선지1번. 부르는 곳 없는데도 계속 가야하는거 ok

선지2번. ㅠ ㅠ ㅠ ㅠ

선지3번. ㅠ ㅠ

선지4번. 기러기는 어떤 대상이었죠?

나와는 달리 길을 잘 가는 애.

그럼 부럽거나 애를 보고 외로움이 심화되겠죠

나랑 비교(대조)되니까

근데 기러기랑 떨어져 있어서 외로운가요?

그럼 **역발상** 하나 해봅시다

기러기랑 가까이 있으면 외롭지 않나요? 아니죠 ㅎㅎ

이건 선지에서 정답이 헛갈릴 때 쓸 수 있는 스킬 중에 하나예요 ㅎㅎ

수학의 귀류법이랑 비슷하다고 해야되나 ㅎㅎ

그 상황을 반대로 가정해보고 판단하는 거!

선지5번. 갈 곳 없이 어찌구. 이것도 맞죠

이건 사실 **☆선지 비교☆**를 통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선지 비교란 선지끼리 비교해서 같은 맥락의 내용은 삭제하는 겁니다

답은 하나니까 같은게 있으면 당연히 답이 아니겠죠? ㅎㅎ

근데 이 문제를 보면 선지1,2,3,5번 모두 갈 곳이 없다 아닌가요?

따라서 답 4번 이렇게 바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지비교는 평소에 연습을 자주해야 수능에서도 쓸 수 있으니

꼭 쓸 필요 없을 때도 선지비교로 풀 수 있는건 다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 선지비교로 풀면 점수 공짜로 얻는 거잖아요 ㅎㅎ

난이도 있는 문제 중에서 선지비교로 풀 수 있는 문제가 꽤 됩니다

꼭 익혀두세요 ㅎㅎ

☺16번.

선지1번. 제목이 제재를 나타낸다. - 제재는 중심소재죠 이거 맞는 선지

선지2번. 시어나 시구의 반복 - ok

선지3번. 정주 곽산 - 화자가 경험한 곳 ○○ 고향인데 당연히ㅋㅋ

선지4번. 갈린 길은 공간적 성격을 띤다. - 공간적이라는 의미가 다른 의미를 묻는 걸 수도 있으니 확실히 하기위해서 (나)는 뭘 물었는지 봅시다

시공간적 성격이라고 돼있네요

그럼 (가)의 갈린 길이 시간의 의미는 없고 단지 공간이나 묻는 것이니 맞습니다 ㅎㅎ

선지가 뭘 묻는지 확실치 않을 때는 대조군을 보세요 ㅎㅎ

선지5번. 의문과 확인을 통해 화자의 의지 드러낸다. - 의지 없네요

16번 답 5번.

(나) 적막강산 - 백석

제목을 보니 조용한 자연에 대해 얘기를 하겠군요 ㅎㅎ

오이밭에 벌배채 통이 지는 때는

산에 오면 산 소리

벌로 오면 벌 소리

이 시는 딱히 해석할 게 몇개 없네요..

쓰인 그대로입니다 ㅋ

산에 오면 산소리가 나죠

벌에 오면 벌 소리가 나구요 ㅋㅋ

대구, 청각, 반복

산에 오면

큰솔밭에 빠꾸기 소리

잔솔밭에 덜거기 소리

벌로 오면

논두렁에 물닭의 소리

갈밭에 갈새 소리

1,2,3 연 형식이 다 같네요 ㅎㅎ

산으로 오면 산이 들썩 산 소리 속에 나 홀로

벌로 오면 벌이 들썩 벌소리 속에 나 홀로

산에 오면 나 혼자 있습니다

벌에 와도 나 혼자 있구요

정주 동림 구십여 리 긴긴 하로 길에

산에 오면 산 소리 벌에 오면 벌 소리

적막강산에 나는 있노라

적막한 공간에 나는 있습니다

어떻게 있다고 나와있지요?

혼자요 ㅋ

☺13번 답이 나왔지만

선지1번 보고 갈게요

자연물과의 관계를 통해서 화자의 현재 상황 제시한다고 했는데 어떤 관계가 있지요?

‘자연물 속에 나 혼자’

이게 관계입니다 ㅎㅎ

☺15번.

선지1번. 때를 알려줬으니 당연히 계절적 배경 드러내죠 ㅇㅋ

선지2번. ~소리 계속 나오니까 청각 ㅇㅋ

선지3번. 선지1,2,3번 모두 아무 의미 없는 선지들이네요 ㅠㅠ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 갔으니 맞죠 ㅇㅋ

선지4번. 산이랑 벌이랑 완존히 완존히 똑같습니다

선지5번. 아무 의미 없는 선지에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나)시가 화자 체험에 대한 시조? 집약을 했던 안했던 상관없구요 ㅋ

이제 (다)하나 남았는데 짜잘한 문제 2개가 남아있네요 ㅎㅎ

무슨 문제인지 먼저 보고 가는 게 낫겠죠?

☺17번은 정계복귀의 기대감 찾아라.

☺18번은 화자와 대상의 관계찾기 - 이 유형은 그대로 읽기로 하면 되겠죠 ㅎㅎ

☺17번 바로 품시다.

기대감 어디있나요?

ㄴ. 다시 볼까 하노라!! 여겼네요 ㅎㅎ

답 2번.

☺18번. (나)의 ㉠에 해당하는 화자와 대상의 관계.

㉠별로 오면 벌이 들썩 벌 소리 속에 나 홀로

무슨 관계죠?

나 홀로 있는거요

아까 13번 문제 선지1번에서도 했죠? ㅎㅎ

나 홀로 있는거, 쓸쓸한 거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다) 해석을 먼저 하고 풀어보도록 하죠 ㅎㅎ

(다) 단가 육장 - 이신의

이건 해설만 바로 적겠습니다.

1장

장부가 할 일은 효제충신밖에 없다
사람이 도리(人道)가 이것뿐이다

2장

소나무가 많았는데 다 없어졌다
난리 후에 도끼가 날썰데..
(도끼가 날썰서 베고 싶은데 나무가 없다는 의미인 듯)
비오면 다시 보겠지?

3장

창밖에 비오고 제비나는 거 보니
귀양살이 하는 나는 한숨겹다

4장

귀양살이 하는 사람은 친구가 없어서
내 시름을 너에게 말해 풀겠다

5장

인간한테 친구는 달 뿐이다
반갑다 친구야
왕따증세 심해짐..

6장

눈이 온 날에 매화보러 가니까 향기가 많이 나서
나비가 향기 맡고 올라봐 애가 탄다

친구가 없어서 제비, 달, 매화랑 친구맺는
불쌍한 귀양사는 사람이야기입니다 ㅎㅎ

고전은 좀만 익숙해지면 참 쉽습니다 ㅎㅎ
맨날 똑같은 주제만 얘기하고
말하는 방식도 그게 그거거든요 ㅎㅎ

☺18번 문제로 돌아가서
혼자 있어 쓸쓸한 거 3, 4장이네요.

근데 선지에 4장은 없고 3장만 있네요.

따라서 답 3번 ㅋ

아마 4번이 4장인 줄 알고 고민한 사람이 꽤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음...

이 문제는 선지비교로도 일단 두개는 지울 수 있는데요.

5장, 6장이 둘 다 자연을 친구로 여겨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선지4, 5번은 답이 될 수 없죠 ㅎㅎ

6

언어 영역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 밭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반복, 의문**
넘치지지미 뻘뻘한 냄새가 **후각**
코를 뻘뻘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 메아리가 되어 **정각**
되 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열구리 담뱃가 다시 도졌다. 아니 아니 **반복**
㉢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뼉 두 뼉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형상화**
혹시나 하고 나는 맑을 기웃거리다.
나는 ㉣ 풀이 죽는다.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웬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고, **도치**

- 김춘수, 「강우(降雨)」 -

(나) 어두운 방안엔
빼알간 **숯불**이 피고, **색채, 색채대비**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계정감, 시각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동양화, 색채**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촉각**
열로 **상기한** 불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반복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흐르는 까닭일까. **의문**
- 김종길, 「성탄제(聖誕祭)」 -

(다) 아직 서해엔 가보지 않았습디다
어쩌면 당신이 거기 계시지 모르겠기에 **도치, 대화체**
그곳 바다인들 여는 바다와 다를까요 **성의**
색채 검은 개펄에 작은 게들이 구멍 속을 들락거리고
언제나 바다는 멀리서 진펄에 몸을 뒤척이겠지요 **의인**
당신이 계시 자리를 위해
가보지 않은 곳을 남겨두어야 할까봅니다
내 다 가보면 당신 계시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에
내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늘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습니다
- 이성복, 「서해」 -

19.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함 것은?
- ㉠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주고 있다. X
 - ㉡ 사물에 인격을 부여해 시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X
 - ㉢ 도치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X
 - ㉣ **감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O
 - ㉤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X
20.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가)에서는 **독백적** **어조**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O
 - ㉡ (나)에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있다. O
 - ㉢ (가)와 달리 (나)에는 **과거 장면**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 있다. O
 - ㉣ **(나)와 달리** (가)에는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 X
 - ㉤ **(가)와 (나)**에는 모두 **시상**을 집약하는 소재가 나타나 있다. O
21.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은 화자의 마음이 '이 사람'과 함께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평온함을 나타낸다. X
 - ㉡ ㉡은 화자와 '이 사람' 사이의 소통을 나타낸 것으로, 화자가 '이 사람'과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X
 - ㉢ ㉢에서 화자는 스스로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이 사람'과 관련된 상황이 그 이전과는 다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O
 - ㉣ ㉣에는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이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드러나 있다. X
 - ㉤ ㉤에는 '이 사람'의 부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다짐이 나타난다. X

22.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서해」에서 화자는 바다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당신'에 대한 역설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① 제1연에서 화자가 '서해'에 가 보지 않은 것은 '당신' 때문이야. 화자는 '당신' 때문에 '서해'를 특별한 공간으로 여기는 것이지. 0
- ② 제2연에서 '그곳 바다'는 화자가 아직 알지 못하는 바다이고, '여느 바다'는 화자가 알고 있는 바다야. 그런데도 화자는 두 바다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 0
- ③ 제2연의 제2~3행에서 화자는 '여느 바다'의 심상을 통해 '그곳 바다'를 추측하고 있어. 그런데 '멀리서'로 보아, 화자와 '당신' 사이에는 어떤 거리감이 있음을 알 수 있어. 0
- ④ 제3연에서 '계실 자리'와 '가보지 않은 곳'은 바다를 가리켜, '남겨두어야 할까봅니다'에는 지금은 '당신'에게 갈 수 없지만 나중에라도 가야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어. X
- ⑤ 제4연의 '한쪽 바다'는 화자가 '당신'이 계실 것으로 추측하는 곳이야. 그곳은 항상 화자의 마음속에 존재해. 0

[23~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회화적 재현이 성립하려면, 즉 하나의 그림이 어떤 대상의 그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림과 대상이 닮아야 할까? 입체주의의 도래를 알리는 <아버님의 아가씨들>을 그리기 한 해 전, 피카소는 시인인 스타인을 그린 적이 있었는데, 완성된 그림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스타인의 초상화가 그녀를 닮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피카소는 “앞으로 닮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에피소드는 미술사의 차원과 철학적 차원에서 회화적 재현에 대해 생각해 볼 계기를 제공한다.

우선 어떻게 닮지 않은 그림이 대상의 재현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시 피카소와 브라크가 중심이 되었던 입체주의의 예술적 실험과 그것을 가능케 한 미술사의 흐름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원근법을 사용

하여 '세상을 향한 창'과 같은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다. 현대 회화를 출발시켰다고 평가되는 **인상주의자들**이 의식적으로 추구한 것도 이러한 사실성이었다. 그들은 모든 대상을 빛이 반사되는 물체로 간주하고 망막에 맺힌 대로 그리는 것을 회화의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빛을 받는 대상이면 무엇이든 주체가 될 수 있었고, 대상의 고유한 색 같은 것은 부정되었다. 햇빛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그려진 모네의 난가리 연작이 그 예이다.

그러나 세잔의 생각은 달랐다. “모네는 눈뿐이다.”라고 평했던 그는 그림의 사실성이란 우연적 인상으로서의 사물의 외관보다는 '그 사물임'을 드러낼 수 있는 본질이나 실체에 더 다가감으로써 ㉠연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세잔이 그린 과일 그릇이나 사과를 보면 대부분의 형태는 실물보다 훨씬 단순하게 그려져 있고, 모네의 그림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자연스러운 윤곽선이 들려져 있으며, 원근법조차도 정확하지 않다. 이는 어느 한순간 망막에 비친 우연한 사과의 모습 대신 사과라는 존재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을 포착하려 했던 세잔의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계승하여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바로 입체주의이다. 입체주의는 대상의 실재를 드러내기 위해 여러 시점에서 본 대상을 한 화면에 결합하는 방식을 택했다. 비록 스타인의 초상화는 본격적인 입체주의 그림은 아니지만, 세잔에서 입체주의로 이어지는 실재의 재현이라는 관심이 반영된 작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인 것은 '닮게 될 것'이라는 말의 의미이다. 실제로 세월이 지난 후 피카소의 예언대로 사람들은 결국 스타인의 초상화가 그녀를 닮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를 설명하려면 회화적 재현에 대한 철학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데, **폼브리치와 굿맨**의 이론이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순수한 눈' 같은 것은 없으며,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성이란 없고, 사실적인 그림이란 결국 한 문화나 개인에게 익숙한 재현 체계를 따른 그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지각은 우리가 속한 관습과 문화, 믿음 체계, 배경 지식의 영향을 받아 구성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작가와 작품에 대해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믿음은 그 작품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피카소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 그림이 피카소가 그린 스타인의 초상'이라는 우리의 지식이 중국에는 그림과 실물 사이의 닮음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지각을 형성해 냈을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사실성이라는 것이 과연 재현 체계에 따라 상대적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피카소의 수수께끼 같은 담변과 자신감 속에는 회화적 재현의 본성에 대한 이러한 통찰이 깔려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11. 6월 평가원 19~22번

(가) 김춘수 - 강우

제목은 내리는 비네요 ㅎㅎ

조금 전까지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넙치지지미 맵싸한 냄새가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조금 전까지 있던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밥상은 차려놨는데 말이죠

어디로 갔나 - 반복, 의문
냄새 - 후각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 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그 사람이 없으니까 내 목소리만 나한테 들리겠죠

메아리 - 청각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 담괴가 다시 도졌나, 아니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이번엔 예전처럼 잠깐 누으러 간게 아닌가봅니다

함 뻘 두 뻘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리다
나는 풀이 죽는다.

밖에 있나 하고 기웃거리는데
풀이 죽네요
왜? 밖에 있나 봤는데 없으니까 그렇겠죠
어둠을 적시며 - 형상화

빛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왠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빛발의 역할이 뭔가요?

그대로 읽기를 해봅시다

한 치 앞을 못보게 하는 대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대상

도치

㉟19번.

선지1번. 대구 없구요

선지2번. 사물에 인격을 부여 = 의인화. 없습니당

선지3번. 도치 ㅇㅋ

선지4번. 감각적 심상 ㅇㅋ

선지5번. 감탄사 ㄴㄴ

두개 남았네요 ㅎㅎ

지금 뒤에까지 확인할 수도 있고 큰 것만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ㅎㅎ

그냥 확인해 볼게요

선지3번. 대상과의 거리를 좁힌다 = 친근감.

대상은 비입니다. 비는 어떤 대상?

한 치 앞을 못 보게 하는 대상.

따라서 ㄴㄴ

19번 답 4번

㉟20번.

선지1번. 독백 ㅇㅋ

선지3번. (가)와 달리 과거장면에 대한 묘사 ㅇㅋ. (가)에는 과거 장면 묘사가 안나오죠

선지4번. (가)에는 그리움 ㅇㅋ 근거는? 없으니까 보고싶어서 찾고 있잖아요 ㅎㅎ

선지5번. 시상 집약 소재 있다= 시 마지막에 어떤 소재가 있다. ㅇㅋ

21번.

선지1번. 밥상 보면서 평온함 느끼는거 어딴죠? 없습 ㅋ

선지2번. 메아리가 소통? 메아리는 내건데... 따라서 땡

선지3번.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ㅇㅋ. 이전과는 다르다고 생각함 ㅇㅋ

선지4번. 풀이 죽는다 가 배신감? 찾으려봤는데 없으니까 풀 죽은건데

선지5번. 부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다짐... 하아... 넌 답이 없다 ㅋㅋ
어쩔 수 없다는 한국말의 뜻을 모르면 틀릴 수 있겠네요 ㅋㅋ

(나) 성탄제 - 김종길

아주아주 유명한 성탄제입니다 ㅎㅎ
산수유가 남자한테 좋다고 마스크에 나온 이후에
산수유 관련식품 쏟아지고 난리죠 ㅋㅋ

**어두운 방안에
바알간 숯불이 피고**

어두운, 바알간 숯불 - 색채대비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짚아가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할머니가 아픈 애를 데리고 있습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빠가 눈 속을 헤치고 약을 가져오셨네요!

눈 - 시각, 계절감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그 약은 바로 산수유

아 - 영탄

붉은 - 색채, 시각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생,
젊은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아빠 옷에 부비부비하네요

서느런, 열로 상기 - 촉각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마지막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헉 벌써 ㅋㅋ

옛 것이란 거의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반가운 옛 것인 눈이 내립니다
당연히 옛 것인데 지금도 있으니까 과거랑 현재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되겠죠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을 느낀다는 것은
그 때 기억을 추억하는 것이죠

서러운, 서른 살, 서느런 - 라임찌네요 ㅋㅋ 서,르 반복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아직도 아버지가 날 위해 따주신 산수유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네요

붉은 - 색채, 시각
일까 - 의문

숫불, 붉은 산수유, 열로 상기, 혈액
붉은 색으로 시 전체에 통일감을 줬네요 ㅎㅎ

◎20번.

선지2번. 과거 현재 연결하는 매개체가 있다 - 눈 있죠 ㅋㅋ
근데 선지에서 '연결하는' 이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연결하는지 안 하는지 쓸데 없는 고민하지 마시고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지3번. 과거장면 묘사 ㅇㅋ

선지4번. (나)와 달리 그리움 - (나)에도 그리움 있죠 이거 땡

선지5번. 시상 집약 소재 - 산수유

(다) 서해 - 이성복

**아직 서해엔 가보지 않았습시다.
어쩌면 당신이 거기 계실지 모르겠기에**

당신이 거기 있을까봐 서해에 아직 안 가봤대요
당신을 만나면 안되나보죠?

도치, 대화체

**그곳 바다인들 여느 바다와 다를까요
검은 개펄에 작은 게들이 구멍 속을 들락거리고
언제나 바다는 멀리서 진펄에 몸을 뒤척이겠지요**

서해도 다른 바다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네요

검은 - 색채

**당신이 계실 자리를 위해
가보지 않은 곳을 남겨두어야 할까봅니다
내 다 가보면 당신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에**

내가 간 곳은 당신이 못 있나보네요
그래서 서해를 안 가고 남겨두겠대요

**내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늘 마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습니다**

서해는 마음 속에 있는 바다인가 보네요.

좀 더 깊게 생각해 봅시다 ㅎㅎ

당신은 어떤 바다에 있는데

내가 가면 없대요.

그리고 내가 다 가면 없어진대요.

가보지 않은 바다는 내 마음 속에 있구요.

잘 생각해보면 그대는 어느 곳에도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다에 갈 때마다 나는 그 곳에 당신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니까

당신이 거기 남지 못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남은 바다인 서해는 아직 안 가봐서

당신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가보면 없다는 걸 확인하겠죠.

그럼 이제 당신이 어디에도 없다는 걸 알게되겠죠.

화자는 서해에 당신이 있지만
만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서
당신이 세상에 없는 걸 알면서도 서해에 가보지 않는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서해에 가기 전까진
당신은 서해에 있다고 내 마음 속에 언제나 남아있겠죠 ㅎㅎ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구요 ㅋㅋ
아닐 수도 있겠죠 머ㅋ

◎22번. 틀린거 찾아라

선지1번. 당신이 서해에 있으니까 서해가 특별하지요 ㅇㅋ

선지2번. 그곳 바다 즉 서해는 아직 모르는데 같을 거라고 말했죠 ㅇㅋ

선지3번. 당신은 서해에 있는데 서해는 멀리 있으니까

당신하고 화자하고 먼거죠 ㅎㅎ ㅇㅋ

선지4번. 내가 가면 당신이 있을 곳이 없어지니까 남겨둔다 했잖아요. 그니까 땡

선지5번. 이건 당연히 맞구요 ㅎㅎ